

주일 예배 2026년 9월 20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이애림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예수는 나의 힘이요 / 찬송가 93장

*성시 교육 / 성시 교독문 72번(이사야 58장)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나 어느 곳에 있든지 / 찬송가 408(신) 466(구)

기도 / 김정신 권사

성경 봉독 / 히브리서 4장 12-16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다 드러난 자리에서 / 박화신 목사

찬송 / 하나님의 진리 등대 / 찬송가 510(신) 276(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살아계신 주 / 다같이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말씀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 드러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곳이 없습니다.
2.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 드러난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를 모르는 척하지 않으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두려움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3. 우리는 관찮아진 다음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 지금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내게 필요한 긍휼과 은혜를 만납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 1:15

지난 주
설교 요약

보이는 것
너머를 사는
사람

고후 4:16-5:7

1. 우리의 삶에는 환난과 고난이 있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증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현실에 머물지 않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성공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시하지 않으십니다.

2. 우리의 인생은 잠시 머무는 장막과 같습니다. 돈과 건강과 명예,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 낸 성공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장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바라면서도, 어느 순간 그 장막의 모습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구어 낸 성공과 번영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시선을 장막이 아니라 장막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3.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려는 우리의 본능과 싸우며,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나 연약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이 새로워 짐을 감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충만한 기쁨이 보이는 것 너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샘 소식

1. 2026년 교회 표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2.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의 힘을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셔서, 받은 은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3. 우리 생명샘 온라인 예배를 실험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교회를 알리며 복음의 선포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 주일, 9월 27일 주일 예배와 친교 후에 각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5. 신정호 미얀마 선교사님과 강승우 파라과이 선교사님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예배 위원

안 내	조 창		박승화	
기 도	박형우(6)	한규철(13)	김정신(20)	한미숙(27)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히브리서 4:12-16

GRACE
FOR
TODAY

다 드러난 자리에서

말씀이 나를 읽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서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3가지 핵심

1 말씀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 읽어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드러납니다. 숨길 곳이 없습니다.
(히 4:12-13)

2 다 드러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서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모르는 척하지
않으시고, 연약함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히 4:14-15)

3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관참아진 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강화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히 4:16)

오늘 우리의 결단

숨기지 않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하겠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화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6

SEE THE TRUTH • MEET THE SAVIOR • LIVE TODAY